

6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증시 `전약후강` .. 다우 보합-나스닥 강세	<p>뉴욕 주식시장이 주요 지수별로 등락이 엇갈리는 혼조세로 마쳤음. 다우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쳤으나 나스닥 지수는 1%에 가까이 올라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고 전반적으로 전약후강의 흐름이었음. 텍사스인스트루먼츠(TI)의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 힘입어 기술주가 강세를 나타내며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음. 유가가 증가 기준으로 7개월만에 70달러선을 돌파하면서 에너지 및 상품주도 강세를 보였음. 미국 재무부가 10개 은행에 대해 총 680억달러 규모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구제자금 상환을 승인했다는 소식은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8,763.06으로 전일대비 1.43포인트(0.02%)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7.73포인트(0.96%) 상승한 1,860.13을,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3.29포인트(0.35%) 오른 942.43을 각각 기록했다.</p>
10개 은행 680억弗 TARP 상환 승인	<p>재무부는 이날 10개 은행들에 대해 총 680억달러 규모의 TARP 구제자금 상환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번 상환 승인은 미국 금융권 회복에 있어 고무적이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고 언급. 은행들의 TARP 조기 상환은 미국 경제가 지난해 가을 촉발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로부터 벗어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p>
도매채고 `8개월 연속 감소`	<p>미국의 도매 채고는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음. 기업들이 경기후퇴(recession)에 대응하기 위해 채고 소진과 생산 감축에 나서면서 채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미국 상무부는 4월 도매 채고가 전일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음. 이는 8개월 연속 감소세. 감소폭은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2%보다도 컸음.</p>
유가 7개월만에 70弗 돌파	<p>국제 유가는 달러 약세와 원유 수요 증가 전망에 힘입어 급등, 증가 기준으로 7개월만에 70달러선을 넘어섰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92달러(2.8%) 오른 70.01달러에 마쳤음. WTI가 증가 기준으로 7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4일 이후 처음임.</p>

제목	주요 내용
中 5월 승용차 판매 55% 증가..월간 최대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일 중국자동차제조업협회(CAAM)는 5월 자동차 판매가 112만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음. 자동차 판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승용차 판매는 54.7% 급증,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인 81만2,178대를 나타냈음. 지난 1~5월 동안 자동차 판매는 14% 증가한 496만대, 이중 승용차 판매는 29.6% 늘어난 364만대를 나타냈음. 같은 기간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37% 감소한 395만대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보였음.
日, 재정흑자 목표 위해 소비세 12% 인상해야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위원회에 제출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흑자 목표를 위해 5~12%의 소비세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정부는 10년내 재정흑자 목표 달성과 함께 4년안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을 절반 가량으로 축소하기로 목표를 세운 상태. 일본 정부는 세수 추정 상 소비세를 2011년부터 매년 1%씩 인상할 경우 2018년에 재정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생산자물가 전년比 하락..7년만에 처음	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10.1로 전년 동월(111.5) 대비 1.3% 떨어져 지난 2002년 8월 이후 6년 10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음. 지난달(111.0)과 견줘봐도 0.8%의 하락임. 생산자물가가 전달 기준으로 하락세를 보이긴 올 1월 이후 4개월만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서비스가 보합을 보인 가운데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곡물과 채소류, 과일, 축산물 등 농산품이 하락세로 반전했다"면서 "무엇보다 공산품이 환율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
OECD "한국, 경제위기 이전 수준 근접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4월 CLI를 전달의 96.5보다 2.5포인트 상승한 99.0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98.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임.
정준양 포스코 회장 "2분기가 가장 힘든 시기"	정 회장은 "올해 하반기에 수급이 다소 개선되겠지만 (연간 기준으로) 전반적으로 두 자릿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 정 회장은 "올해 세계 철강수요가 10억9,200만톤으로 전년 대비 17.5% 감소하고, 조강생산도 6년 만에 처음으로 10억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설명.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